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듣기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21:33-46

거의 매일 제 아내는 자신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녀는 나와 나눌 이야기, 환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노력하지만, '아주 드물게' 제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제 생각에 정신이 팔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아차릴 겁니다.

보통 이럴 때면 그녀는 제게 "듣고 있어요?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그리고 꽤 자주, 나는 그녀가 방금 한 말을 반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당신은 말을 듣고 있지만, 경청하지는 않고 있군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경청한다는 것은 말하고 있는 소리의 단어들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느끼고, 이해하고, 그 말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경청할 때, 우리는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느끼고, 이해하기 위해 생각을 사용하며, 말과 행동으로 반응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 마음, 의지와 감정을 사용하여 - 참여합니다. (각주 1.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믿음은 청각적인 사건입니다."라고 합니다. [롬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라

33절에서 예수께서는 청중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권유하십니다. [마 21:33]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 비유는 앞의 비유인 두 아들의 비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비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을 위한 또 다른 비유를 드십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께서는 의사소통을 하실 때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이미지를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원, 포도즙 압착틀, 탐의 언어를 이해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도밭을 돌보는 것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봄에 수선화와 튤립이 나타나면 감사합니다!

분명히 포도밭은 일반적으로 위도 30도에서 50도 사이, 가급적이면 강이나 호수에 가깝게 심어 온도 변화를 완화합니다. 포도밭은 배수뿐만 아니라 태양이 포도나무에 더 강하게 쬐일 수 있도록 언덕이나 경사면에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지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BC 포도밭이 대부분 오카나간 지역에 있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도밭을 돌보려면 가지치기, 해충 방제, 비료 주기, 관개, 캐노피 관리, 열매숙기 모니터링, 수확 시기 결정 등이 필요합니다.

이 비유에서 "집 주인"은 큰 농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유대인들과 외국인들은 이스라엘의 땅에 넓은 지역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유한 지주들은 자신들의 땅을 소작농들에게 임대했고, 소작농들은 다시 농작물의 일부를 지대(임대료)로 지불합니다.

이 경우, 부유한 지주는 새로운 땅에 새 포도밭을 조성합니다.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는 소작농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그는 포도원을 만듭니다.
- 그는 야생 동물로부터 그것을 보호할 울타리를 제공합니다.
- 그는 보통 바위를 깎아 만든 두 개의 대야로 구성된 포도즙 틀 (그림)을 파는데, 하나는 다른 것보다 높습니다. 포도를 위쪽 대야에 붓고 발로 으갠 다음 주스를 수로를 통해 아래쪽 대야로 부어 발효 과정을 시작될 것입니다.
- 그는 도둑을 경계하고 화재를 조심하기 위해 망루를 세웁니다.

땅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여행을 떠납니다.

[마 21:34]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임대 조건에는 추수 때 어떤 형태의 지불이 포함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가 농작물의 자기 몫을 징수함으로써 논란의 여지가 없는 소유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각주 2. 새로운 포도밭을 만들면 4년째까지 수확량이 미미합니다. 포도 넝쿨이 자리를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경우 평화롭던 포도밭 풍경이 추악하게 변합니다.

[마21:35-37]

35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36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37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를 수확할 때, 부유한 지주는 자기 몫의 곡식을 거두기 위해 하인들을 보내지만, 농부들은 한 명은 채찍질하고 한 명은 죽이고, 다른 한 명은 돌로 쳐 죽입니다. 지주는 또 더 많은 무리의 다른 하인들을 보내지만, 그들도 같은 운명을 겪습니다.

보통은 지주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이 비유는 불합리한 죄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소작농들은 분명히 포도밭의 소유권을 가져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포도원에 대한 지주의 소유권을 거부하고 그의 모든 종들을 폭력적으로 배척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안다면, 이 비유의 참조는 쉽게 해독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사야 5장과 시편 80편을 분명히 암시합니다. 이사야 5:1-4를 들어 보십시오.

[사 5:1-4]

- 1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 2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짚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 3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 4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 집 주인(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소작농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45절에서 그들은 이 이야기가 그들에 관한 것임을 인식합니다).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그 자신과 자신의 길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성막과 희생 제사와 절기를 통해 자신의 성품과 의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은 은혜롭게 그들을 약속의 땅에 두셨고 많은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많은 종들, 곧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등등. 비유에 나오는 주인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극도로 오래 참으셨습니다(롬 2:4). 그분은 놀라운 친절을 통해 그들을 회개로 이끌고자 하셨습니다.

이 어떤 것도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의도적이셨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인 분들께, 항상 ‘무작위, 아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저는 학교에 제 딸 중 밀레니엄 세대인 아이를 데리러 가서 "오늘 하루는 어땠니?" 물으면,

"그냥 아무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무작위로 나타났고, 넌 아무렇게나 몇몇 아무런 장소에서 어울렸다고?."

"넵."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아, 우린 그냥 아무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너는 학교에서 아무렇게나 이런저런 일들을 재잘거리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들을 했다고?
어쩌면 이 아무개들이 듣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고?"

"엎."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선택된 것은 “아무렇게나, 무작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어야 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열매입니까?

- 신뢰하고, 행복하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마 21장).
- 지상명령(至上命令)에 대한 순종: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마 22장).
- 그들은 열방의 빛이 되어야 했으며, 그들의 예배와 일상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 겸손, 공의, 자비로 특징지어지는 사회.
- 열방은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 위해 이스라엘로 와야 했습니다 (이사야 2:2-3)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진실로 귀를 기울이고) 그 계시가 그들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하는 대신,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각주 3. 느헤미야 9:26; 예레미야 25:4-7; 마태복음 23:34; 사도행전 7:52, 히브리서 11:36-38).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레미야 7:24-26]

24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25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26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들은 경청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싫어요!" 라고 말합니다.

결국,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이 비유의 지주는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할 것이다. 정녕 그들은 그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0장에서는 아들을 "친애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예수에 대한 명백한 암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포도원에 대한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비우시고 인간들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어린아이로서 연약한 가운데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으며, 때가 되자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과 행동으로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는 군중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무력하며, 두들겨 맞아서 일어날 수 없으며, 삶의 근심으로 인해 스트레스받고, 혼란스럽고, 방향 감각을 잃고,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그것은 그의 속을 뒤틀었습니다. 그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으라"(마태복음 17: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은 "그는 악마의 왕자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그는 대식가이고 바보야!"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비유로 돌아가서:

[마 21:38]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들은 마음이 굳은살이 되어있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지주의 자기 포도원에 대한 소유권을 절대 인정하려 하지 않으며, 아들의 요구는 더더욱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그 아들을 보고 욕심에 손을 비빉니다! 그들은 그가 유산의 상속자이며 이것이 그의 유산을 빼앗을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도원(이스라엘 백성)을 제 것으로 만들길 원했기 때문에 아들을 붙잡습니다.

[마 21:39]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소유권에 대한 그들의 장악은 이제 확고합니다. 포도밭은 그들의 것입니다!! (각주 4. 만일 그들이 포도원에서 그를 죽였다면, 포도원은 그의 피로 더럽혀졌을 것이고, 그들은 농산물을 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기를,

[마 21:40]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마 21:41]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 니이다.

즉, 지주는 그 비천한 사람들을 비천한 최후로 이끌 것이며, 포도원은 다른 소작인들에게 임대될 것이 고, 그 들은 포도원에 대한 그의 원래 계획을 존중하고 합당한 때에 열매를 가져올 것입니다. 와우!

[마 21:4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 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예수께서는 유월절 주간에 불리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시편 118:22-23을 인용하십니다. 그 소리는 그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예수께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어린이들은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씀은 시편 118:25절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가 구하옵나니"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시편 118편으로 들어가십니다.

시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시편 118:21-25를 읽어봅시다.

[시118:21-25]

21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22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23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24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25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호산나!)

시편 118편에는 인간이 기대하는 것의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부하는 것을 높이는 것은 오직 주님이 하시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각주 5. 시편 118 편은 다윗 왕에 대해 기록되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건축자들"(다윗의 가족, 사무엘)은 그를 간과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거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갓돌로 삼으십니다.)

"모퉁이 돌" 또는 "갓돌"(각주 6. 말 그대로 "모퉁이의 머리"입니다)은 그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치 꼭대기에 놓인 마지막 뼈기 모양의 돌로서 상승하는 돌들을 서로 잠그고 있는 돌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주춧돌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것은 두 벽의 모퉁이에 있는 기초에 놓인 큰 돌입니다. 두 벽의 위치를 설정하여 건물 전체의 위치를 설정합니다. 모든 것은 모퉁이 돌에서 측정되고 정렬되었습니다. 그것은 건물 전체의 무게나 스트레스를 견뎌냅니다.

2. 모퉁이 돌에 자신을 맞추십시오.

예수는 우리의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과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무게, 짐, 그리고 스트레스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마태복음 11:28-30).

제대로 정렬되지 않은 집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기초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바닥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벽은 앞뒤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천장에 균열이 나타납니다. 기초는, 종종 눈에 띄지 않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바퀴가 정렬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브라질에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1988년 식 뷔익 르세이버를 1달러에 주셨습니다. 그것은 고전이었습니다. 다들 질투하시는군요.

시속 100km 정도에 이르면 차가 흔들리기 시작하곤 했습니다. 속업소버는 사라졌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부딪히면 마치 공해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구 온통 튀어 오릅니다. 사람들은 내 차를 타고 가면 멀미를 하곤 했습니다. 보고 있기만 해도 속이 안좋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모퉁이 돌인지 아닌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예수와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삶이 속도를 내고 과속 방지턱에 부딪혔을 때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관계는 틀어지고, 전문직 경력은 붕괴되고, 시험에 떨어지고, 은행 잔고가 바닥나고, 주식 시장이 하락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우리의 삶이 어떻게 정렬되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경향은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우리의 초석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삶을 건설하며, 폭풍이 닥치면 집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삶의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새 성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퉁이 돌이 되실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44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왕국은 유대 기득권으로부터 박탈될 것입니다.

-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 그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에서 실패하였다.
-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 그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빛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 그들은 이 모든 것의 요점, 즉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예언자들을 거부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성문 밖에서 로마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기 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포도원을 돌보는 일,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고, 주님의 길을 가르치는 일에서 그들의 특권적인 역할이 박탈되어 "그 열매를 맺는 백성",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백성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며칠 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주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거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 말김, 향복, 순종하는 마음(마태복음 21장).
-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것입니다(마태복음 22장).
-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특징지어질 것입니다(마태복음 5-7장)
-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로 특징지어질 것입니다(갈라디아서 5:22-23).
-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제자를 삼을 것입니다(마태복음 28장).

3. 하나님의 영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시오.

예수께서 왕국이 그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교회의 출현, 즉 모든 열 방으로부터 모인, 참된 제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백성(민족 ethnos)의 출현을 예언하십니다. 실제로, 마태 복음 28장 19절에서 볼 수 있듯이, 복음은 모든 족속(복수형 - ethne)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시대에는 이 모든 족속들이 예수를 모퉁잇돌로 삼아(행 4:11-12; 롬 9:33 참조) 하나의 새로운 "나라"(벧전 2:6-9)로 모일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산 돌"이 되어, 모퉁이 돌인 예수님과 맞추어지고, 서로 결합되어 이 하나님의 새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집이 될 것입니다(엡 2:20).

실제로, 2세기경에 이르러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비유대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 그리스인, 로마인, 아랍인, 페르시아인, 에티오피아인, 인도인 등등.(각주 7. 44절에서 예수께서는 이사야 8:13-15과 다니엘 2:34-35, 44-45를 인용하여 돌의 비유를 확장하십니다. 돌 위에 넘어지는 자들, 그 위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은 "산산조각이 나"(먼지처럼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돌이 그들 위에 떨어지면 "부서지거나" "분쇄될"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서 그 돌은 이 세상 왕국의 형상에 부딪혀 무너집니다. 부서진 조각들은 먼지처럼 흩어지고 바람에 실려 갑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틀어 여러 왕국에 일어났지만, 우리 인간은 가족 왕국, 비즈니스 왕국, 경제 왕국, 민족 왕국, 정치 왕국 등 우리 자신의 기초 위에 우리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주에 이르기까지, 약 6개월 동안 예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죽일 것이라고 말씀해 오셨습니다(16:21; 17:23; 20:18).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비유의 형태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5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46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얹어뒀더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을 손가락질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이야기에 나오는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듣고 회개하는 대신, 예수를 체포하려고 계략을 씁니다. 이 순간에, 그들을 붙잡고 있는 유일한 것은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대중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최소한 그들은 예수를 예언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때를 기다리며 적절한 때를 기다리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진정으로 경청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께 애착을 갖고 우리의 삶을 그분과 일치시키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관계, 지위, 명성, 중독, 직업을 잃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모퉁이 돌과 일치시키며, 우리 자신을 예수께 붙이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통해 그분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식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를 실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유월절 주간이 시작될 때, 어린이들은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주님, 우리가 간구하옵니다!" 같은 주에 백성들은 희생 제사를 드리러 오면서 시편 118편을 계속 불렀을 것입니다.

25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26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27 여호와와 하나님이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밭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맏지어다

예수는 그 유월절의 축제의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이었습니다. 그는 체포되고, 결박되고, 조롱당하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벽 밖으로 끌려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 우리의 죄 – 우리의 비참한 죄, 그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반성하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기 위해 멈춥니다.

우리 중 일부에게는 이 순간이 예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길에서 벗어났는지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회개와 재정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완악해졌다면, 부드러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처음으로 예수와 자신을 일치시키는 순간입니다.

사도행전 4:11-12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구원(죄 사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향한 그분의 초대를 듣고 응답하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의 비유를 전한 지 며칠 후, 목요일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계셨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부서지려 하셨고, 우리의 용서를 위해 그분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26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라,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기도와 잔 나눔

[마26:27-28]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기도와 분배

그의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유월절의 끝에, 예수님은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날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다시 오심을 묵상하면서 찬양팀과 함께 찬양합니다.